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2016년 한미음가족캠프가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부부 18쌍, 자녀 28명 등 모두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내용 14면)



지난 8월 23일 양육비이행확보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업무협력회의 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선희 원장 및 임직원들이 본소를 방문하였다. (관련기사 30면)

4 • 이 달의 메시지

창립 60주년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6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II ㉓

9 • 특집 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7강

14 • 교육부

17 • 가정폭력상담실

20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26 • 결혼과 인생(163) 만화일기

출발점 _ 장차현실

27 • 인터넷 상담

28 • 임상실습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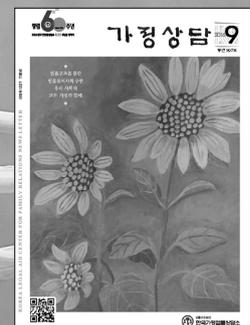
30 • 상담소 소식

32 • 지부소식

33 • 상담통계

34 • 좋은 책

멈춰라, 생각하라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이 달의 메시지



창립 60주년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창립 60주년의 해’ - 올해를 관통하는 상담소의 표어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의 방 한 칸을 빌어 시작한 상담소가 우리 사회 소외계층, 빈민하는 이웃들을 위한 법률구조의 장을 열었고, 60년의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지닌 사람은 언젠가 모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겠지만, 형태가 어떠한 사회의 근간으로써 가정이 있는 한 상담소는 앞으로도 백년, 이백년 계속해서 그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 1월부터, 60주년의 해를 오늘의 자리에서 돌아보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백인변호사단 모임’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분석과 대응 및 정책’,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한다’ 심포지엄 등은 6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된 사업이었고, 다음 달인 10월 12일에 열리게 될 창립 60주년 기념식은 그 정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60주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상담소를 거쳐 간 수많은 가정의 모습과 그 안에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을 대하는 내담자들의 생각과 생활태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가정의 변

화'를 많이 언급하지만, 때로 그것은 상담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 갈등과 마찰의 양상은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외도와 폭력, 시가 혹은 처가와와 갈등이 그것으로 다만 구체적인 양상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갈등요인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의 태도와 시각의 변화입니다. 195,6,70년대까지는 대체로 배우자의 외도(특히 남편의 외도), 시가와와 갈등, 가정폭력이 부부갈등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사유는 부부 간 갈등과 마찰의 우선순위에 놓여있으나 헤어짐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사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생존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외도나 폭력은 그 정도에 따라 한번 짚은 참아 본다거나 고쳐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식이 있으나,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사고방식, 애정의 유무 등 배우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요시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부 간 갈등 마찰이 심화될 경우 헤어짐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만 주어진다면 웬만한 것은 참고 견디며 살아냈던 것에 비해 80년대 이후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생활을 바라는 경향입니다. 예컨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덜 구체적인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자유워졌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거나, 이혼은 끝 곧 삶의 끝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이혼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혼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필수항목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은 물론 그 부모들도 결혼은 인생의 과정에서 선택의 하나일 뿐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 그리고 무한한 희생과 헌신보다 어느 정도는 내 인생, 내 삶을 돌보겠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가족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의 가부장제에 기초했던 대가족이 산업화 사회를 거치며 핵가족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부모 가정, 비혼모(부)가정, 동료가정 등 다양한 대안 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오랜 시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제도였던 일부일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와 가정은 서로 그 변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법과 제도, 정책의 적절한 뒷받침이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상담소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항상 모든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 변민하는 이웃들과 함께 가정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적 양상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며 법적,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여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마다 즐거움과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3)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 흔들리는 가족, 지척대는 남성 -

정 유 성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

들며 둘러보니: 달라진 세상, 바뀌는 살림

오늘날 발달하는 정보 및 기술과학을 타고 지구촌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은 물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그 가장 두드러진 조짐으로 개인 주관 정체성부터 인간관계의 ‘친밀성(intimacy)’, 그리고 세대 및 ‘젠더(gender)’ 관계의 안정성 등 생활세계 곳곳은 물론 사람 존재의 속내까지 휘젓는 변화가 그것이다. 사람들은 지구촌화된 세상에서 떠돌이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물선 일을 하며 살아간다.

살펴보니: 흔들리는 직업, 형클어진 가족

유동적 현대에서 자본주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평생직장은 옛이야기가 된 지 오래여서 스스로 특정한 일, 그리고 노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사람들은 밥벌이로서 ‘일자리’에만 매달리고, 그 일과 일터, 더불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등 가장 중요한 삶의 테두리를 잃고, 뿌리내리지 못한다.

가족의 경우 산업화 시대에는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였지만, 산업화가 저물어가고 있는 요즘은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공동체 가족’ 등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여러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자체가 바뀌었
다기보다 오랜 가부장 전통이 무너지고 여성도 남성과 더
불어 공적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여성이 도맡았던 사
적영역, 재생산 영역에 틈이 생기고 가족의 기능, 의미가
달라진 탓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다 이혼율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대두와 같은 요인마저 겹
치면서 가족문화는 더욱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족
이라는 자리에 전통적 '재생산'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성
성(gender)' 과 같은 사회 및 인간관계 영역, '친밀성
(intimacy)' 과 같은 감성영역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혼란이
한창이다(백, U. 외, 2010).

짚어보니: 보살핌과 돌봄의 위기, 그리고 가족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마주하지 못해 생겨
나는 사회전반의 위기, 특히 육아나 노인 부양과 같은 '보
살핌과 돌봄의 위기' 에서 온다. 전통적으로 가족, 특히 일
하는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짐 지우면서 꾸려나갔던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이제 보살핌과 돌봄 노동의
시장화 또는 사회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상품화된 보살핌
의 노동시장에 주변화 된 여성 노동력이나, 지구화된 경제
체제에 얽힌 약한 고리인 제3세계 여성 노동력의 문제가 발
생한다. 또한 보살핌과 돌봄으로 가족 안에서 생겨나는 소
중한 감정의 잉여가치가 사라지고, 이런 보살핌이나 돌봄
에서 스스로 단절되거나 소외된 남성들은 자아성숙, 정체
성 형성에 치명적인 제한을 받게 되며 여성들 또한 여성들
끼리, 또는 따로, 가르고 나뉘어 '분할하/되고 통치하/되는

(divide[d] and rule[d])' 엇걸림에 빠지게 된다.¹⁾

이는 결국 이른바 가족의 위기 및 '해체', 또는 새로운 문
명전환에 따른 '가족문화의 변화' 의 원인이며 결과다. 이제
'가족 이후의 가족(family after family)' 라는 화두로 가족
을 처음부터 거듭 보고, 다시 만들어가야 할 정도다(백, U.
외, 2010).

돌아보니: 한국 가족, 그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압축적 성장(장덕진 외, 2015)과 졸속한 변화를 거듭해
온 한국사회에서 가족문화의 변화 또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이라는 '오래된 새 모순, 새로운 옛 모순' 에 엇걸릴
수밖에 없다. 서구 산업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의 탄생과 나란히 핵가족이라는 틀이 생겨났
다. 반면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 자체가 식민지, 내전, 억
압적 산업화 등으로 뒤틀리고 찢겨진 채 서둘러 내달아 왔
으며 그 힘든 세월을 살아남으려 애쓴 주인공은 개인이 아
니라 가족이었다. 그나마 압축성장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무엇보다 '노동서사' 가 망가졌다. 이럴 때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다. 바깥일에 파묻혀 온 한국 남성들에게 특
히 그렇다. 그러나 가족은 지금 대전환의 한복판에 자리한
다. 어떤 통계를 보아도 한국사회 가족문화의 변화는 뚜렷
하다. 그 크기부터 '최소화'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 구성이
단순해지고 맞벌이 가족 증가, 가족분가 및 이혼·사별의
증가는 가족 결속력 약화와 함께 가족형성부터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찾아보기 어려운 전환
이 가족문화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김유정, 2016). 한 편 '전

1) 이전에 다문화 사회 대두와 관련된 보살핌과 돌봄 위기를 다루었던 내용을 옮겨 온 것이다(정유성(2012)). 나아가 돌봄 노동의 '계도
화' 까지 우려되는 실정이거니와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도맡아 하던 전통적 유형이 그 구실을 다하자 이를 갈음하는 현대적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취업여성이 외부 지원 없이 임금노동과 가족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흔히 볼 수 있는 후기 현대적 모
델이 그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지원 같은 사회적 또는 노동시간 조정 같은 기업 차원의 지원 없이 기껏해야 남편의 도움 정도에만 기
대며 수행하는 돌봄 노동으로서 대표적인 여성역할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정체된 젠더 혁명(stalled
gender revolution)' 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노동시장이나 과정의 변화 없이 유급노동을 위해 가
족영역을 축소하여 자녀 보살핌이나 노부모 돌봄은 오로지 시설에 맡기게 되는 '차가운 현대적 모형', 그리고 공공영역에서도 보살
핌과 돌봄이 중요한 섹터가 되어 사회화된 서비스가 확대되며 동시에 가족 안에서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보살핌과 돌봄에 동참하
는 '따뜻한 현대유형', 곧 남녀평등한 평등주의적 모델이며 돌봄을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혹
실드, 조홍식 외, 2013: 9에서 재인용).

통적 가족주의'와 '탈 근대적 개인화'의 충돌 속에 보살핌과 돌봄의 위기와 관련된 담론에서는 가족이 "위험사회의 도피처가 아니라 위험사회의 진원지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김혜영: 함인희, 2014. 107에서 재인용)도 있다.²⁾

훑어보니: 나는 세상, 뛰는 가족, 기는 남성

앞서 돌아본 대로 한국의 남성은 마지막 보루인 가족에 고단한 삶을 기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가족은 이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당사자인 남성은 아직 그 변화를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또 여전히 전형적 산업사회 게임의 법칙인 '경쟁-경력-경화'(Konkurrenz-Karriere-Kollaps:Br?ndel/Hurrelmann, 1999)에 매어 바깥일 성공과 그 비밀인 가족 부양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뜯어보니: '가족에 저주받은 사람들'³⁾

이는 남성 잘못만은 아니다. 사회의 병리는 너무도 긴 노동시간,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 무엇보다 가족이나 육아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직장문화부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까지 도움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가족과 관계 회복하

자니 어디부터 비롯해야 할지 알 수도 없다. 무엇보다 가족 문화 전반에 구조, 상황, 조건은 달라졌지만 남성들 의식, 관행, 일상은 바뀌지 않고 그 사이 격차, 갈등, 공백만 무성하다. 이를테면 가정에서의 대화단절, 가사노동에 대한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노는 이중성 및 지체, 그리고 분열현상이 그렇다.⁴⁾

나며 찾으니: 보살핌과 돌봄이라는 구원

한국사회는 이런 저런 위기의 와중에 '가족해체' 또는 '가족문화의 변화'라는 현실에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결과인 '보살핌과 돌봄의 공백'에 대해 정책이 난무하고 대책 마련에 바쁘기만 하다. 하지만 남성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변화, 곧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지 않고는 위기를 이겨내기는커녕 멈추기조차 어렵다.

요컨대 보살핌과 돌봄을 여성들에게만 맡기다가 남성들은 대부분 보살핌과 돌봄을 통해 얻는 관계와 존재의 성장에서 스스로 밀려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살림의 바탕을 '돌봄 사회'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바탕이 되는 자리인 가족, 작은 데서부터 섬김으로 보살핌과 돌봄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
- 2) 가족담론에 관련한 저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함인희(2014)가 정리한 내용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서구사회에서 탈현대 맥락에서 진행되는 가족위기 담론이 이 땅에서는 아직도 전통과 근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다만 여기 '탈현대적 요소'가 포함되며 이것들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병렬, 착종된다는 점만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순 구조 속에 한국 특유의 '뿌리 너무 깊은 나무'인 가족 중심주의적 의식, 그리고 '쌈이 너무 얇은 물'인 '완강한 가족주의' 아버투스(임지현, 2000)와 까지 깊이 있게 천착하면 의미 있을 것이다.
 - 3) 감히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파농(Fanon, 2004)의 명저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당연히 주인이면서도 온갖 상황과 정황 때문에 쫓겨나고 이윽고 그 주관조차 형클어지고 망가진 식민지 시대 주민들의 시난고난한 팔자와 비슷한 꼴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싶어서다.
 - 4)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의 국민 중에 청소년(9~24세) 6.7%가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으며, 절반이 넘는 56.5%가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시간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어머니 경우 41.9%)고 한다. 또 2015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4년 맞벌이 부부의 1주일 노동시간은 남성 46.8시간, 여성 41.4시간으로 남성이 5.4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어 평균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 32분에서 2014년 40분으로 그야말로 조금 늘어난 정도였다.(<http://hikostat.kr/2940>) 무엇보다 문제는 가사에 대해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47.5%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는 남편은 16.4%에 불과했다(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watch_kr&logNo=220561367925)는 것이다.

전이 감정과 부모 세대와의 갈등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지난번 강의에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와의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이후 맺게 되는 부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감정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며, 뇌에 기억을 남겨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처하도록 합니다. 기억은 다음세대에 유전되는 기억과 유전되지 않는 참조기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전되는 기억은 부모자녀간의 애정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참조기억은 몸을 통해 사실적으로 기억되는 외연적인 기억과 암묵적인 기억으로 구성됩니다. 감정은 이 암묵적 기억에 의해 기억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경우 암묵적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어, 다음에 비슷한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장됩니다. 군대에 다시 가거나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이전에 경험했던 힘든 기억이 현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꿈에 나타나는 것은 암묵적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서 지식이 축적됩니다. 아이의 뇌는 알파고와 같습니다. 부딪히는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암묵형태의 기억으로 저장되어 나갑니다.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산업화 이전 시대에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라진 현재,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이전보다 큰 효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갈수록 부모로부터 배운 지식보다는 자녀세대가 직접 경험하여 획득한 참조기억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접하게 되는 부모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기에 부모의 영향은 자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검사 항목 중 대인지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적은 아이들은 대인지능이 낮게 나타납니다. 즉,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후우울증을 앓거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 갈등이 있다는 것이 다시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주는 존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과 미움 양쪽 모두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인간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생성된 감정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결과를 참조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관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인간은 이전에 맺었던 관계의 결과로 형성된 감정을 유형화하고 세분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전이감정입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른 대상에 느끼는 감정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겉보기와는 달리,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두 번 베푸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본인은 계속 베풀고 상대는 받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이나 행동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감정은 화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보답을 받지 않아도 좋다고 하지만, 감정은 이성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이처럼 뇌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뇌의 비밀 중 하나는 뇌의 좌측반구와 우측반구가 서로 다른 삶의 전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분석 후 어떻게 대처하는 나의 전략에서, 우리의 뇌는 도덕과 비도덕, 욕망과 명예 등 상반되는 가치를 가진 두 뇌의 부분들을 경쟁시키고 그 때 그 때 가장 생존에 우세한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한 쪽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지만, 다른 한 쪽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방향은 하나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선거로 택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당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의 양상은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모든 자식은 그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런 자식의 행위 때문에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세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충고하는 삶의 방식이 자녀세대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세대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세대는 이러한 부모세대의 사랑 때문에 고통 받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유성생식을 시작하면서 영원한 생명대신, 죽음과 다음 세대로의 번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성간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존에 더 적응적인 자손이 탄생하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진화된 삶을 선택한 대신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을 선택한 결과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박테리아 보다는 사랑과 애증이 있고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삶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행복과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외로움, 질투, 원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모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 감정 중 많은 부분이 자식을 만들기 위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결국,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나 자신은 아니지만, 나에게 속하고 나 자신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고통 받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부모세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부 물려주기 위한 훈육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 나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무리한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기 위함입니다. 아이들이 3살 정도가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가장 극렬하게 나오고 완성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는 자식이 반항하는 것 같고, 또 자식의 행동이 미덥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스스로 하려는 시도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여기면서 자아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행위를 '부모 말을 듣지 않는 행위'로 간주한 부모들이 이를 막는 과정이 부모자녀간 사춘기 갈등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의 경험이 바로 지혜였지만, 요즘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모의 예전 경험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게임은 그저 오락거리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어엿한 스포츠이며 굉장한 산업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속초의 포켓몬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프로야구는 당시의 어른들이 볼 때는 지금의 게임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 스포츠 선수는 가장 부러운 직업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구가 없고 부모 말을 잘 따르는 아이가 오히려 '자율성이 떨어지는 아이' 일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자율성인데,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타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소하고 타인과 연합할 수 있는 연대감 역시 생존에 중요합니다. 자율성이 낮고 연대감이 높으면 의존적이 되고, 자율성은 높지만 연대감이 낮으면 독단적이 됩니다. 자녀의 자율성과 연대감 모두 높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자녀를 양육하면 자율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모가 되어, 각각의 유전자를 반씩 주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인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뇌가 어떤 부분에서 우수한지 끊임없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자녀의 잠재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자녀가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것을 막게 되면, 자녀는 뇌를 경험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을 획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모는 자기욕구를 찾는 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면 부모자녀관계는 좋지만, 자녀의 독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마치 부모자신이 잘못을 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처럼 자녀를 질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있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훈육이 앞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부모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자녀가 어릴 때에는 관계가 좋지만, 자녀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학교성적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훈육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압박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부모들도 배우자의 감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자녀의 인간관계의 기준을 형성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각도로 보고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자료를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배려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 입장에서 이를 부모의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금지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전화를 계속 하는 부모의 행동을 딸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는 이러한 자녀의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친구 집에서 한번 묵어본 적이 없는 아이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남은 상처는 사회적 관계보다는 친구, 배우자,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재현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입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방치하거나 관심이 없는 부모보다는 오히려 자녀에게 관심이 지나쳐 자녀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 부모자녀 간 갈등의 주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시험 보는 기간 동안, 내내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자녀가 대학입시를 할 때, 모든 입시전형을 찾아 볼 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에 가겠다고 하자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삶을 찾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우리의 뇌는, 뇌가 순간 결정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자신의 뇌가 결정한 것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견이 있는지 듣고 이를 취합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견해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의견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그 자녀는 발전할 수 없고,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더 능력이 있어도 자녀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리는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자율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여 상처를 주었는데도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녀가 상처를 받았다면, 자녀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 준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자신이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본인이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추정과 단정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부모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만큼 부모의 영향은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자녀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나름대로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이를 성장한 자녀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방식을 강요하고, 자녀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는 평생 불화 속에 살 수 있습니다. 밤늦게 다니지 마라, 외박하지 마라 등 부모의 불안을 자녀에게 강요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방식만을 강하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녀에게 이를 설명하고 자녀가 그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면 이를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배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작은 부분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모 자녀관계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결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시집에도 잘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있는 차이에 의한 아내의 사소한 지적을 자신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강압적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아내에게 전이하게 됩니다. 아내의 가벼운 지적은 아버지의 강압적 질책으로 받아들여져, 남편이 자신을 억압하던 아버지와 아내를 동일시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아들을 잘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중요시 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는 정반대인 온화한 아내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아내가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삽니다. 아내가 온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아내가 주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갖고 삽니다. 온화한 부인은 남편의 그런 태도에 짓눌려 늘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을 어렵게 대우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경직된 태도를 어머니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랑을 주지 않는 냉랭함으로 인식하여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머니에게 느꼈던 결핍된 따뜻함을 자신 때문에 경직된 아내에게 전이시킨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주었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을 경우, 자녀는 이러한 암묵적 기억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의 뇌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 관계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의 관계를 토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이감정이 발생하는 기전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될 수 있지만, 절대적 판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을 파악하고 그 밖의 다른 변수들까지 감안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알던 전이 감정을 일으킨 대상과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신앙을 통해 상처가 완화되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도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한다면,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은 될 것입니다.

다시 부모자녀관계로 돌아가 보면,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등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면 그 관계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유리했지만, 현재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교육보다는 자녀와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혹 이것이 전이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전이감정에 의한 영향 때문에 왜곡되어 그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중함 되새기고 가족 간의 친밀감 다져

- 일 시 : 2016년 8월 27일(토)~8월 28일(일)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참석자 : 부부 18쌍, 자녀 28명 등 총 81명
- 강 사 :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우애령 강사(작가, 현실치료 국제자격증 상급과정 강사)
이영옥 소장(트리인마인드 예술치료교육연구소장, 미술치료사)
최정아 소장(트리인마인드 예술치료교육연구소장, 동작치료전문가)
최수연 강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무용치료사)
마주이 보조강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무용치료사)
- 진 행 : 조은경 상담위원, 복미영 상담위원, 이지현 상담위원 및 자원봉사자 9명



첫째 날 27일 부부프로그램

「부부를 위한 댄스 테라피」

▷ 강사 : 최정아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강사는 참가자들 스스로 신체와 마음에너지의 정도를 체크하는 것을 시작으로 부부 끼리 짝을 지어 손 마사지와 백허그 등 가벼운 스킨십 활동과 짝을 지어 춤을 추면서 부부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댄스 활동, 서로 두피 마사지와 발 마사지 해 주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부부간의 서로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마지막에는 배우자에게 서로 편지를 쓰고,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부가 함께하는 웃음치료」

▷ 강사 : 노재광 강사(아하 교육컨설팅)

강사의 지도 아래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풀기를 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였다. 박수게임, 안마게임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다지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 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배우자와 같이 한다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27일 아동프로그램

「웃음놀이학교」 - 미취학 및 초등저학년

▷ 강사 : 노재광 강사(아하 교육컨설팅)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볼링게임, 맥도날드 게임, 기차놀이, 주사위 놀이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하며 긴장을 풀고 다른 아동들과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서로 협력하여 놀이를 하면서 협동심, 규칙에 대한 이해, 유능감 등을 기르고 공동체의식과 자신감을 고취하였다.

「동작놀이학교」 - 미취학 및 초등저학년

▷ 강사 : 최수연 강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마주이 보조강사(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참가아동들은 오늘의 나의 에너지는 얼마인지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카프 흔들고 던지기, 낙하산과 go & stop을 이용한 다양한 동작활동, 영어 노래와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신체표현을 하였다. 언어적 표현보다 신체의 움직임으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참가아동들은 몸의 긴장을 풀고 적극적으로 다른 아동들과 어울려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작체험학교」 - 초등고학년 아동

▷ 강사 : 이영옥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참가아동들은 첫 번째로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친밀감

을 형성하고 '나와 관련된 단어 찾아 소개하기', '내가 원하는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색실꾸미기, 책갈피 만들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면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참가아동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날 28일 부부프로그램

「배우자의 성격과 나의 성격 알아보기」

▷ 강사 : 우애령 강사(작가, 현실치료 국제자격증 상급과정 강사)

강사는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개인이 가진 욕구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강사는 부부간에 이러한 욕구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성격의 서로 다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것이 바로 '성격차이'가 되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강사의 설명 후, 참가자들은 직접 욕구강도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배우자와 서로 비교해보면서 각자의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갈등이 완화될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강사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의 욕구에 대해 알아본 뒤에는 상대방의 욕구를 비난하지 않으면

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사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화의 목적은 서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28일 아동프로그램

「웃음놀이학교」 - 미취학 및 초등저학년

▷ 강사 : 노재광 강사(아하 교육컨설팅)

참가 아동들은 간단한 체조와 숨바꼭질, 수건돌리기 게임 등 활동적이면서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놀이를 하며 긴장된 근육을 풀고 난 뒤, 팀을 나누어 젠가, 도미노, 볼링, 팽이치기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였다. 강사는 각 놀이별로 일정 목표를 이루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연령별도 모두 성공이 가능한 목표를 정하였기에 참가 아동들 모두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팀별로 놀이를 진행하면서, 질서있게 차례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작체험학교」 - 초등고학년 아동

▷ 강사 : 이영옥 소장(트리인마인드 연구소)

참가 아동들은 '자화상 그리기', '내 얼굴 조각상'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탐색해보고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자신의 개성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으

며, 작품을 완성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언

참가자들은 평소에도 늘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이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바빠 서로 안마를 해주는 것도 있고 있었는데 부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자녀들과 같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다지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의사소통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 결혼생활을 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서로 안마를 해 주면서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부부 의사소통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배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음.
- 가족이 함께 1박2일 동안 즐거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전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음.
-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신경 쓰느라 배우자와 깊은 대화가 어려웠는데,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부부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정리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 관계 뿐 만 아니라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과 공동의 이야기를 갖게 되어 가족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워하던 참가자가 매우 인상 깊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부부가 참석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은경 상담위원



반복되는 남편 폭행과 이로 인한 아내의 가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상담 종결 후에도 자조모임에 참석하도록 해

사건번호 2015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 4회,
피해자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5. 8. 11. ~ 2016. 2. 4.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3살 된 딸이 있다. 부부는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몇 번 출동하는 상황까지 있었지만 사건 입건은 본 건이 처음이었다. 행위자는 시비 끝에 피해자가 자신의 배와 가슴을 발로 3-4회 밟고 욕설한 것에 화가 나 머그컵을 식탁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다툼 중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일로 상처를 받았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기중심적이고 사소한 일에 성질을 내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행위자 상담의 목표를 배우자의 성격과 관점 이해하기로 정하고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자조모임과 부부캠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지만, 여러 사정으로 프로그램 참석률은 높지 않았다. 처분 기간 중 행위자의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기물파손행위가 있었으며(휴대폰, 노트북), 분노조절 문제가 계속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부부는 주로 가사, 육아 등과 관련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는데, 상담종결 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평소에는 잘하고 또 지금의 부부관계에 만족하지만,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집단상담에서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집단성원들의 조언을 구하여 상대방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었다. 평화로운 대화가 가능하려면 부부가 서로 양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더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다만, 행위자의 인식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기에 향후 본인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5버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10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5. 8. 20. ~ 2016. 2. 5.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4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 1녀(44세, 41세, 37세)가 있다. 행위자는 자신이 일을 그만두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처제 소유의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추진한 사실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전화를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폭행하고, 텔레비전을 장식장에 집어던져 유리를 손괴한 사실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보호처분 결정 이전에 3개월간 입원하여 음주문제 치료를 받았다.

상담 초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력사실을 사과하고 화해하였으며, 현재 음주를 하지 않고, 구직 중이다. 피해자와 전화상담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위자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행위자가 취업을 하게 되어 야간의 집단상담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정하였는데 행위자는 순응적으로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2015년 10월, 신장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고, 11월 25일 별세하였다. 행위자는 갑작스런 피해자의 별세로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집단상담에 참석하여 집단성원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본인도 자신의 경험에 비롯한 조언을 집단성원들과 나누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사별 후 혼자 지내며 자녀들과 교류하고 있다. 음주는 하지 않지만 퇴근해서 집에 오면 피해자 생각으로 우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하였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을 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고, 잘해주지 못했다며 마음 아파했다. 행위자가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위로하고, 절제심

과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격려했으며, 상담 필요시 언제든 상담소를 찾아오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5버 제1***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피해자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2회, 자조모임 4회, 부부상담 3회, 부부 교육강좌 3회, 부부집단상담 4회 등 총 26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0. 7. ~ 2016. 4. 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아내)는 초등학교 친구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한 지 21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1남1녀(17세, 22세)가 있다.

결혼 시 피해자 친정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행위자가 상처를 받았고, 결혼 후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무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14일째 되던 날 행위자의 첫 폭행이 있었고, 이후로는 자주 심한 폭행이 있었다. 행위자의 폭행이 있으면 피해자는 가출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대략 50회 정도 폭행과 가출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혼할 의사는 없었고 행위자와 함께 상담에 임하였다.

행위자 역시 가정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폭언을 자제하겠다고 다짐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였는데 피해자는 행위자의 needs를 인정하고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충실하게 참여하였고,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상담에서도 역동적인 역할을 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상담기간 중 행위자가 음

주하고 난동을 부려 이혼에 합의하고 행위자는 집을 나가 지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행위자는 피해자가 부부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 냉담하게 지냈다고 하면서 갈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부부는 아들의 수술을 계기로 다시 화해하였고 행위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상담 종결 시 행위자는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폭언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한 것과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을 긍정적인 상담의 효과로 평가하였다. 상담을 받기 전 부부관계를 59점, 종결시점의 부부관계를 60점으로 평가하고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지만 향상된 그 1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잘 지내다가도 과거 생각이 나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고 행위자에게 과잉대응을 하는 자신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력을 다짐하였다. 피해자의 심적 안정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종결 이후에도 자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5버 제2***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캠프 1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5. 10. 20. ~ 2016. 4. 2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13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녀(13세, 8세)가 있다. 부부는 결혼 초부터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해온 터에 2015년 행위자의 외도까지 겹쳐 갈등이 심해졌고 특히 행위자는 자신을 용서한 피해자가 이후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도 제기하

였다.

본 사건 발생 당일, 행위자는 피해자가 임의로 행위자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본인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본건 처분 시 본인의 외도사실이 언급되었던 것을 들며 폭력사건과 외도 사실의 무관함을 항변하였다. 이에 행위자의 행동이 물리력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며, 행위자의 외도가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고려와 그로 인한 피해자 상처에 대한 재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행위자 상담의 목표를 첫째, 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와 인식의 개선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이 된 갈등 해결 내지 대안 모색으로 정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집을 나와 지내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상담 초기, 행위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제재인 상담에 참여한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라는 점을 수용하였고, 상담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담 중기를 지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

상담종결 시 행위자는 자녀들을 우선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하였고, 부부캠프에 참석한 자녀들의 만족도가 높아 다음에 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행위자의 소송 취하를 반겼고,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의견이 일치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재발이 없었다는 점과 행위자의 노력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행위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이후 결혼생활에서 갈등요인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폭력, 도박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법률구조 2015-217

담당 : 공성록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1세)와 피고(남, 29세)는 2005년 2월경에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사건본인들(여, 10세, 4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건본인1을 출산했을 때부터 원고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사건본인2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중에도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였는데, 원고가 당시 잘못을 사과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머리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밟았다. 피고의 폭행은 2014년 6월경 별거할 때 까지 지속되었다. 별거 중에도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칼을 들고 찾아와 집기를 부수고 원고를 위협하였다. 피고는 혼인 중 주식, 인터넷도박, 스포츠 토트 등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수천 만원의 빚을 저서 원고가 전적으로 가정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7. 22.부터 사건본인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수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 양육비 일천만원 등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5-275

담당 : 이미연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38세)과 상대방(남, 40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7세)을 두었으나, 2010년 4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대신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청구인은 생계가 어려워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였고, 결국 유치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2003년경 사건본인을 잠시 상대방 부모님께 부탁하였다. 상대방 부모님은 이후 청구인과 사건본인 간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2007년경 청구인이 간신히 사건본인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사건본인을 찾아갔을 때 사건본인은 치아가 모두 썩어 있는 등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그때부터 사건본인을 다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상대방에게 병

원비 등의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4.28.)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 양육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5,000,000원은 2016. 6월 말까지, 나머지 5,000,000원은 2016. 8월 말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장래양육비로 2016. 5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폭행, 외도,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강제조정**

법률구조 2015-317

담당 : 배근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53세)는 1990년 4월경에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경 운영하던 공장에 불이 나면서 피고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심한 주사를 부렸으며 원고를 폭행하고 흥기로 협박하였다. 2007년경에는 원고를 칼로 찌르려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후에 원고는 나와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할 때마다 피고는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며 현재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강제조정 (서울가정법원 2016.2.23.)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며,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족들과 수년간 연락을 끊은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308

담당 : 배승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6세)는 1997년 1월경에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사건본인(남, 19세, 16세)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중 원고 부모의 도움으로 회사를 창업하였으나 계속되는 적자로 부도를 내고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2008년 재단법인 **사이버 대학교를 인수하였다가 재단법인의 횡령사건과 연루되어 2010년 10월경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는 현재까지 가족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5.11.4.)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11. 5.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 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자녀와 함께 탈북한 남편이 북한에 있는
내내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

법률구조 2015-332

담당 : 유정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남, 51세)와 피고(여, 50세)는 북한 양강도에 서 1989년 11월경에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성격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그 와중에 피고는 2011년 7월경 조카들의 대한민국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평안남도 소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는 2013년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이에 원고는 생사를 알 수 없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3.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아내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335

담당 : 고민지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4세)와 중국 국적의 피고(여, 51세)는 2005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나 원고는 중국에서 상대방과 한 번 만나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05년 8월경까지는 중국에 있는 피고와 연락을 하였으나, 핸드폰이 망가진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끊겼다. 원고는 혼인신고가 된 것도 모른채 10여년을 보내다가, 원고의 누나가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서 혼인신고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법적인 부부 상태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2016.3.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외도와 폭력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336

담당 : 오유경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57세)는 1988년 5월경에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 도중 여성 직장동료와 퇴근 후 잦은 술자리를 갖고, 주점에서 일하는 여자와 여관을 출입하는 등 부정한 행위 등을 저지르며 외박을 일삼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을 차거나 한쪽 눈을 때려 원고가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집안에서 흥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집기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의치증이 심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원고를 의심하여 폭행 하였으며,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또한 피고는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무관심하여 제대로 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아 자녀들과의 불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창원지방법원 2015.12.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남편의 폭력으로 23년간 별거한 아내에게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355

담당 : 두완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47세)는 1992년 9월경에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1남을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에게 폭행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당시 신생아이던 아들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 위협을 느낀 원고는 1993년 5월경 1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20여 년간 식당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왔다. 피고의 폭력으로 초래된 원고와 피고의

별거는 23년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서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원고는 나팔관 종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5.2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절도와 성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에서
실질적 양육자인 자녀들 어머니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판결**



법률구조 2015-413

담당 : 손정미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내용 : 청구인(여, 33세)과 상대방(남, 35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2세, 남, 11세)을 두었으나 2013년 8월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수입이 없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못하였고, 식사 및 등교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채 새벽에 귀가하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절도와 성범죄 등을 저질러 2015년 3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누나 집에 맡겨졌던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을 찾아오면서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현재 사건본인들은 청구인과 생활하면서 안정을 되찾았고, 청구인은 식당에 일을 나가며 얻는 수입과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4.6.)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벽과 폭력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고
결국 자녀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도록 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391

담당 : 배경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55세)는 1989년 4월경에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술을 먹고 들어와 원고 및 자녀들에 대하여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고, 가정 생계에 소홀하여 일을 하지도 않아 원고가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렸다. 피고는 원고가 일을 하는 것도 싫어하여 원고는 일을 몇 번이나 그만두어야 했으며, 술을 먹고 원고의 목을 조르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원고와 자녀들을 피고를 피해 집밖으로 도망가야 했고 결국 2005년 경 자녀 셋은 보육원으로 보내져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2.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은 피고의 폭력적 성향 및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의 자녀 3명이 2005.경 피고로부터 쫓겨나서 고통을 받아오던 중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폭력을 당할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대리인은 조정 및 변론기일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약속하여 원고를 안심시켰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가 불충실하여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문제없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이 종결되고, 안도의 숨을 쉬는 원고의 모습을 보고, 대리인은 추후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그 동안의 상처를 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였습니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배경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파산 면책 신청 당시 누락된 채무에 대해
면책확인 결정**



법률구조 2015-415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면책확인의 소

내용 : 원고(남, 59세)는 2010년 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고는 빚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2015년 8월 피고로부터 채무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서야 2010년 파산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원고는 3급 장애인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재활을 목적으로 재활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 확인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3.11.)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었으나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처에 대해
장래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5-453

담당 : 정연기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29세)과 상대방(여, 29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으나 2010년 7월경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 청구인은 막노동, 식당일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여 어렵게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지만,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을 찾아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양육비만 해도 월 60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혼자 양육하

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5.19.)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5.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이 조정 성립 이전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5회 이상 1항 기재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16. 6.부터 매월 20일 상대방이 보낸 양육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낸다. 청구인이 위 증빙자료를 위 기한까지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말일이 되어도 증빙자료를 받을 때까지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청구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동의 없이 각자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가지 않는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미성년후견인이었던 자녀들의 조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됨에 따라
자녀들의 숙부로 미성년후견인 변경**

법률구조 2015-460

담당 : 채인경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변경

내용 : 청구인(남, 61세)은 사건본인들(여 19세, 남 15세)의 백부이다. 사건본인들의 모는 2008년 사망하였으며, 부는 2009년 행방불명되었다. 이후 청구인의 부(남, 83세)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2014년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2015년 미성년후견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후견인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사건본인들의 통장 재발급을 받기도 힘든 등 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건본인들의 양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본인들은 각각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로 앞으로는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은 현재의 미성년후

견인에서 청구인 자신으로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4.21.)

1.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사건본인들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변호사 최**를 선임한다.
4. 미성년후견감독인은 2016. 12. 31., 2018. 12. 31., 2020. 4. 30. 각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했으나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475

담당 : 유정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27세)와 피고(남, 44세)는 2014년 9월경에 혼인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간 후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도박에 빠져 가사에 소홀하여 원고와 갈등이 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년 2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피고는 한국행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원고와 불화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원고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피고는 입국하지 않았다.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6.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와 함께 탈북한 아내가 북한에 있는
남편에 대해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479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2세)는 탈북자로 피고(남, 49세)와 북한 양강도에서 2001년 3월경에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3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2013년경 살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하여 갖은 고생 끝에 2015년 4월경 대한민국에 정착하였다. 피고는 나중에 탈북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6.6.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보증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5-484

담당 : 정민영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및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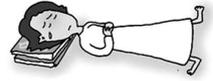
내용 : 신청인(여, 65세)은 2003년경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이후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신청인은 나이가 많고 6급 시각장애로 인해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부가 얻어준 보증금 1000만원의 지하단칸방에서 무상거주하며 지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일을 도와주고 받는 월 30만원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채무에 대한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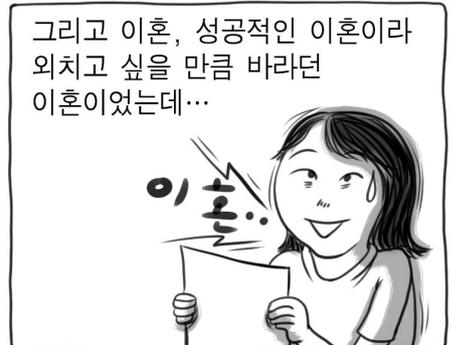
글 | 그림 | 장차현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겨우겨우 버텨오던 시간들...



그리고 이혼, 성공적인 이혼이라 외치고 싶을 만큼 바라던 이혼이었는데...



난 상실감으로 끝없이 우울해 했다.



아빠의 빈자리가 커 보이는 아이들...가족들의 모습만 보아도 위축되고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를 피하는 나를 발견한다.

나 못가~ 일이 있어서...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허무했다...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 그런데...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내 앞에는 새로 쓰여 질 나의 인생이 백지처럼 놓여 있었다. 이제 나는 더욱 단단해져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출발점에서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새로 시작할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지!!... 흠~뭘부터 시작해 볼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남겼습니다. 이에 장남인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그 후 아버지의 재산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저와 동생들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Q

A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가 더 발견되더라도 더 이상의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된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 또는 채무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재산목록의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만일 아직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나기 전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상속재산목록 변경신청을 하면 될 것이고, 법원은 변경된 상속재산목록이 첨부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난 후라면, 관할 법원에 별도의 상속한정승인 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경정된 재산목록을 첨부된 새로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위와 같이 경정된 재산목록이 첨부된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또다시 민법 제1032조 등에 따른 공고 및 최고 절차 등을 밟아야 합니다.

김민선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생의 실습 소감을 요약하여 싣는다.

홍 유 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하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학부 시절 심리학을 선택한 이유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여름방학 실습 지원 기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가정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개별상담, 라오니 모임,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등을 참관하고 실제 법률구조사례들과 기록들을 보며, 모든 법률문제가 그러하지만 특히 가정에서의 문제는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각 내담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기보다는 문제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하며 2주 동안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가족법을 수강한 뒤 실습에 왔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담을 참관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 몇 호에 해당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법률적인 지식도 물론 얻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내담자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러 상담선생님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때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외도 등의 문제상황에 놓인 내담자들을 단지 소송당사자가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마음을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되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김 주 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 시절 친족·상속법을 수강하면서 다른 법과는 달리 사람 그 자체를 다루는 가족법의 체계에 흥미를 느꼈고, 법전원 2학년 1학기에 친족·상속법을 다시 수강하면서 친족·상속법의 실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직 어색함이 가지지 않았던 첫 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일정에 대해서 숙지한 후에 처음으로 하게 된 일은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전화벨이 울렸고,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친족·상속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전화 상담이 익숙해 질 무렵 변호사님 및 상담선생님들의 실제 상담을 참관할 기회가 주어졌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상담도 참관 하게 되었습니다. 내담자들은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내담자 분들은 법률 상담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힘든 상황을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사 법률상담은 법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과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조화될 때 완벽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소송구조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변호사에게 보낼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진술서와 증거서류 등을 파악하여 소장과 비슷한 형식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가사사건에 있어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 고

통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커다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지식이지만 열심히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접 내담하신 분들의 위자료 이행 명령신청서와 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처음 작성하는 것이라 서투르고 어색하였지만,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무사히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고 고마워하시는 내담자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짧은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의 문을 나서지만, 학교로 돌아가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뒤에 차후에 이곳에서 내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꼭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주간의 실습을 마쳤습니다.

.....

김 범 준

사법연수원 제46기

.....

상담소에서 수습을 하면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상담가로서 경험할 일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각종 문서를 작성하면서 법률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내담자들과 직접 상담하고 많은 상담에 참관하면서 내담자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하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제가 가진 문제점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들과 대면하고 상담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담위원님과 변호사님, 공익법무관님들이 다른 업무가 있음에도 하루에 여러 건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담의 내용 여부를 떠나서 그 열정과 냉철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에 관한 인식의 전환도 있었습니다. 개신교인으로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혼 소송을 해서 돈을 버는 법률가를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참관하면서 이혼도 가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에 의한 악의의 유기와 같은 사안처럼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배우자 일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소가 많은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가정의 정의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인류의 정의를 이끌어 내는 기관으로서 우뚝 서길 기대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담소에서 2달간 홀로 전화방에 있으면서도 외롭거나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은 상담소 구성원들의 애정과 관심,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서 상담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는 이곳을 떠나지만 밖에서 상담소를 응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상담소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아름다운 가정의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관으로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소 소식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임직원 본소 방문

지난 8월 19일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임직원(한은주 센터장 외 5명)은 본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 이혼소송 관련 판례 동향 및 본소의 이혼 전·후 법률 상담, 화해조정, 법률구조 및 기관 연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이 배석하였다.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업무협력 회의

지난 8월 23일 양육비이행확보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업무협력회의 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선희 원장과 배소영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노지선 법률지원부장 및 강동주·박현정·손영준 대리 등이 본소를 방문하였다. 이날 회의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진행으로 곽배희 소장과 이선희 원장의 모두 말씀에 이어 양육비 이행관리원 위탁 사건에 관한 협조 요청사항과 양육비 법률구조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곽배희 소장 외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황현정 변호사, 김민선 변호사, 정연이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관련사진 2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Ⅱ」 개강

본 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2016년 2학기 개설된 「리걸클리닉Ⅱ」의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 본 과목은 본 상담소에서의 법률 상담 참관을 통하여 실제 법률가가 만나는 상담사례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법률 분야 뿐 만 아니라 민사 및 파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체험하며 법률구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전문법조인의 자질을 고양하고 리걸 마인드를 함양할 것을 목표로 한다.

강의는 지난 8월 30일 본 상담소에서 첫 강의를 시작하였고 16주의 강의를 진행한 후 12월 13일 종강한다. 본 강의는 곽배희 소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배인구 부장판사가 팀티칭으로 진행된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6월 27일~8월 22일)
이예진, 한지혜, 송희원, 신소현, 양예지, 임동균, 장재원, 이재훈, 이준성, 이영주
- 이화여대 직장체험연수 (7월 1일~8월 31일)
유지원, 권윤지, 송채은, 이경민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8월 8일~22일)
김솔비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서지연, 정근정 변호사, 오동준, 권혁채 법무관

용강노인복지관 출장상담

8월 22일 김진영 상담위원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2016년 8월 9일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법원과 수탁기관간 간담회-보호재판·보호명령재판에서의 협력강화 관련-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8월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곽배희 소장,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출연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8월 19일 본소를 방문한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은주 센터장과 23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 등 관계자들과 업무협력 관계를 논의하였다. 29일에는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출연하여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본소의 사업전반에 대해 대답을 나누었다. 30일에는 본소에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구조 강의를 시작하였다.

고맙습니다

2016년 8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김인숙, 한정희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곽성환, 권민경, 김경민, 문석빈, 박수열, 박은정, 이영임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재희, 방선영, 장주용, 장철진,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학생 자원봉사
정주은, 이현지, 남보라, 전승민, 조자원, 남서연, 손지희, 이민주, 조혜린, 김예진 님

후 원

- 일반회원이 되신 분
한승미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8월 11일, 12일, 25일 평창경찰서 직원 등에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총 4회 (119명) 실시하였다. 9일, 2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구리·남양주지부

8월 8일, 9일, 16일, 22일,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8월 9일~11일 자녀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13일, 27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 실시하였다. 이태현, 김재철, 김진원, 정진진, 전종필, 김영심, 정홍욱, 김영대, 이성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계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9회 실시하였고 가사재판상담을 총 2회 실시하였다. 광주시법원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7회 실시하였다. 이혜민, 공영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기관지정사업 협의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 양육에 관한 의무면담을 총 13회 실시하였다. 8월 11일, 18일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이동식 가정폭력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춘희, 김현명, 박지훈(성남), 박지훈(수원), 양승철, 임용호, 전태우, 최유나, 한두환, 한승일, 홍성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8월 8일, 9일, 10일, 19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제주지부

8월 3일, 10일, 18일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성훈, 김수진, 최호

웅, 조준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운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8월 1일, 22일 학교폭력행위자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11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강재현, 오유경, 강은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춘천지부

8월 1일, 12일, 16일, 22일, 24일 로당 노인 대상 생활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23일, 24일 춘천지방법원의뢰 부부상담을 2회 실시하였다.

정읍지부 실습소감문

곽승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유난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에서 2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쳤습니다. 실무수습 전날 밤까지 부족한 실력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소장님, 상담사 선생님들의 배려한 가르침 덕분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읍은 고창군, 부안군과 같은 관할 구역입니다. 따라서 농촌 및 노인 인구가 많아 다양한 가정 관련문제, 노인 문제 등을 주로 다루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과 상담사님들은 저의 질문과 적극적인 자세가 귀찮으셨을 텐데도 항상 격려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자 이혼재판 중 상담 위탁 사건이나 집단 상담 등의 일정을 조정해 수습기간 중 참관 및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가사사건을 담당할 때 법률가의 태도, 사회적·윤리적 의무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서비스가 아직까지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조하겠습니다. 사건을 마주할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부정의 편에서지 않게 항상 경계하라는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이 배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7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7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989건으로 본부가 7,213건, 지부가 5,776건이었다.

본부는 6,706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274건·소장 등 서류작성 171건·소송구조 6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54건·화해조정 550건·소장 등 서류작성 33건·소송구조 39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70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6월에 비해 양육비(7.1%→10.0%), 면접교섭권(2.2%→2.3%), 인지(0.8%→1.2%), 친생부인(0.8%→1.0%), 친생자준부(1.7%→1.9%), 파혼(0.1%→0.4%), 혼인무효·취소(0.5%→0.8%), 이혼무효·취소(0.2%→0.3%), 가족관계등록부(2.3%→2.8%), 친양자(0.5%→0.6%), 성년후견(1.1%→1.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8%→0.9%),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0.5%→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70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76건(20.5%), 전화상담 5,115건(76.3%), 통신 및 인터넷상담 214건(3.2%),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6년 8월 본부 상담 통계

| | | | | |
|--------------|-------|----------|----|------|
| 총상담 6,671 | | | | |
| 법률상담 (6,237) | | | | |
| 면접 | 전화 | 통신 | 지상 | 순회 |
| 1,361 | 4,580 | 288 | 7 | 1 |
| 화해조정 | | 소장 등서류작성 | | 소송구조 |
| 190 | | 207 | | 37 |

* 2016/8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1,074건

| 지부 | 총상담 | 법률상담 | | | | | 합계 | 화해조정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 | 면접 | 전화 | 통신 | 서신 | 기타 | | | | |
| 서울(본부) | 7,213 | 1,376 | 5,115 | 214 | | 지상 1 | 6,706 | 274 | 171 | 62 |
| 강릉 (033) 652-9555 | 88 | 52 | 26 | | | | 78 | 8 | 2 | |
| 거제 (055) 633-7636 | 325 | 318 | 7 | | | | 325 | | | |
| 광주 (062) 672-6011 | 54 | 23 | 31 | | | | 54 | | | |
| 구리·남양주 (031) 551-9976 | 207 | 93 | 76 | | | | 169 | 32 | 3 | 3 |
| 군산 (063) 442-1560 | 117 | 59 | 51 | | | | 110 | 4 | | 3 |
| 대구 (053) 745-4501 | 490 | 210 | 19 | 2 | | 출장 210 | 441 | 46 | | 3 |
| 대전 (042) 520-5258 | 261 | 50 | 209 | | | | 259 | | 2 | |
| 제주 (064) 753-9421 | 232 | 63 | 129 | | | | 192 | 39 | | 1 |
| 동해 (033) 535-0188 | 83 | 33 | 48 | | | 출장 2 | 83 | | | |
| 목포 (061) 273-2514 | 53 | | 51 | | | | 51 | 2 | | |
| 부천 (032) 667-2314 | 320 | 61 | 156 | 1 | | | 218 | 102 | | |
| 성남 (031) 707-6661 | 297 | 171 | 74 | | | | 245 | 47 | 1 | 4 |
| 수원 (031) 243-4600 | 395 | 149 | 123 | 2 | | 출장 83 | 357 | 35 | 2 | 1 |
| 순천 (061) 753-9910 | 139 | 64 | 73 | | | | 137 | 2 | | |
| 충구 (02)2238-6554 | 277 | 238 | 36 | | | | 274 | | | 3 |
| 안동 (054) 856-4200 | 55 | 6 | 27 | | | | 33 | 22 | | |
| 울산 (052) 246-9568 | 127 | 51 | 70 | | | | 121 | | 5 | 1 |
| 익산 (063) 851-5113 | 320 | 105 | 211 | | | | 316 | | 4 | |
| 인천 (032) 865-1120 | 319 | 160 | 106 | | | | 266 | 37 | 1 | 15 |
| 전주 (063) 244-2930 | 432 | 195 | 88 | 141 | 4 | | 428 | | 1 | 3 |
| 정읍 (063) 535-3705 | 94 | 32 | 56 | | | | 88 | 6 | | |
| 진주 (055) 746-7975 | 130 | 38 | 58 | | | | 96 | 34 | | |
| 청원·미산 (055) 261-0280 | 320 | 174 | 69 | 2 | | | 245 | 74 | 1 | |
| 청주 (043) 257-0088 | 161 | 54 | 57 | | | | 111 | 45 | 5 | |
| 춘천 (033) 257-4688 | 81 | 48 | 26 | | | | 74 | 7 | | |
| 태백 (033) 554-4004 | 108 | 37 | 35 | | | 출장 35 | 107 | | | 1 |
| 평택·안성 (031) 611-4251 | 114 | 45 | 57 | | | | 102 | 6 | 6 | |
| 제천 (043) 644-5690 | 100 | 32 | 68 | | | | 100 | | | |
| 포항 (054) 283-7555 | 77 | 16 | 58 | | | | 74 | 2 | | 1 |
| 지부총상담 | 5,776 | 2,577 | 2,095 | 148 | 4 | 출장 330 | 5,154 | 550 | 33 | 39 |
| 총 상담 | 12,989 | 3,953 | 7,210 | 362 | 4 | 출장 330 지상 1 | 11,860 | 824 | 204 | 101 |

**2016/7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2,630건

멈춰라, 생각하라

지금 여기, 내용 없는 민주주의의 실패한 자본주의



슬라보예 지젝 지음
주성우 옮김 이현우 감수
2014, 와이즈베리

스스로와 사랑에 빠지지 마라 ...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로 돌아간 그 다음 날이다 ... 우리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대안을 생각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임을 기억하라 ... 문제는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다 ... 노동과 고문을 아웃소싱하고 결혼정보업체가 우리의 사랑을 아웃소싱하게 된 이후,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적 참여 역시 아웃소싱되도록 내버려뒀다. 이제는 되찾아야 한다 ... 공산주의자들은 오늘날 가장 효율적이고 무자비한 자본가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날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자본주의를 가졌지만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협박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혼은 끝났다. 변화는 가능하다 ...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갈망하지만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는다. 갈망하는 것을 진정으로 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 2011년 10월 9일 뉴욕 주코티 공원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이 2011년 뉴욕 월가점령 시위 당시 했던 연설로 그 전문이 이 책 「멈춰라, 생각하라」에 실려 있다. 책의 부제 ‘지금 여기, 내용 없는 민주주의의 실패한 자본주의’에 꽂혀서 끝까지 읽었지만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솔직히 오리무중이다. 처음 책을 펼칠 때만 해도 250 페이지 남짓한 이 책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은 몰랐다!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철학자’이자 ‘동유럽의 기적’이라 불리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지젝이 헤겔의 철학과 라캉의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의 사

상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2011년 월가점령 시위부터 아랍의 봄을 통해 번져 나온 ‘해방의 꿈’과 총기 난사로 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르웨이의 부레이비크 사건과 같은 ‘파괴의 꿈’을 면밀히 분석한 것이다.

지젝은 체제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체제를 강화시키며 수렴될 때, 잠시 행동을 멈추고 현 체제의 본질과 유지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야 하며,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이 남긴 컵라면을 보면서 목이 메던 내가 위선자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시대 교육 정책 담당자로부터 그 말을 들을 줄 몰랐던 ‘개 돼지’의 일원으로서 정말 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책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주제에 공감하면서 저들이 위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해 본다. 하다못해 ‘군부독재 타도’라고 목표가 분명했던 그 때가 어찌면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시민들에게 위선조차 보이지 않고,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이 부정과 부패도 능력이라며 그들의 한 표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꺼이 행사하는 것을 볼 때, 이 사회는 망하는 게 좋겠구나 싶지만 소셜 토지의 한 대목을 생각한다. 소작농이던 과거를 잊고 일제에 붙어 부를 축적하는 형 김두만에게 우직한 농부 동생 영만은 이렇게 말했었다. ‘형은 형 당대만 살고 말 것이요?’

이 숙 현 편집부장

2016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
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6년 9월 23일(금) ~ 24일(토)
- ▶ 대상 : 비혼모 가정
- ▶ 장소 : 상담소 · 용인 에버랜드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 일시 | 강의제목 |
|------------|------------------------|
| 9월 22일(목) |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
| 10월 27일(목) |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
| 11월 24일(목) | 외도의 유형과 대처 |
| 12월 22일(목)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1956 ~ 20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때 2016년 10월 12일(수) 오전 11시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1956년, 우리 사회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시기에 가부장제의 질곡 아래 신음하던 여성을 인간의 자리에 올려놓고 양성평등의 기치 아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의 법률적 구제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0년 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 사업과 가족법개정운동, 의식개혁을 위한 법의 생활화 운동, 가정문제 예방과 대안 모색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선도해 오면서 우리 사회의 법률복지 영역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이 뜻깊은 역사를 발판으로 우리 사회 모든 가정, 모든 가족구성원의 복리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키우고 지탱해온 것은 상담소가 지향하는 바에 공감해온 사회 각계각층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도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회
- 국민의례
- 기념사..... 광배희 본소 소장
- 연혁 소개..... 임재연 본소 이사, 변호사
- 축하.....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근속표창
- 샌드애니메이션 공연..... 박진아 작가
- 축하공연..... 김소현 뮤지컬 배우
자전거 탄 풍경
- 폐회
- 점심식사